

##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sup>1)</sup>

김희석\*

The proverb in a collection is dead.<sup>2)</sup>

A proverb in a collection is not dead, but it is alive only as a potential.<sup>3)</sup>

### 1. 들어가는 말

잠언 1-9장이 잠언서 전체를 위한 해석학적 틀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 거듭 제안되어 왔다. 잠언서가 해석학적 서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잠언서 안에 존재하는 해석학적 난제들 때문이다. 특별히 잠언 10장 1절-31장 9절에 수집되어 있는 개별 잠언들(individual proverbs)은 그 문학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해석학적 문제점(hermeneutical problem)들을 드러낸다.<sup>4)</sup> 그러므로 본고는

---

\* 총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1) 본고는 필자의 박사논문 중에서 1-9장의 해석적 기능을 분석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증과 주석을 위해서는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참조하라.

Hee Suk Kim, "Proverbs 1-9 as a Hermeneut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roverbs," Ph. 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0).

2) Wolfgang Mieder, "The Essence of Literary Proverb Study," *Proverbium* 23 (1974), 892.

3) Michael V. Fox, *Proverbs 10-31*, AB 18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484.

4) 엄밀하게 말하면, 잠언 1-9장은 잠언 10장 1절-31장 9절의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 서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 본고에서 '잠언 10-31장'이라는 호칭은 잠언 10장 1절-31장 9절을 가리키며, 잠언 31장 10-31절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언 31장 10-31절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은 곧 "여호와를 경외함"을 특징으로

잠언 10-31장에 나타나는 해석학적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해석학적 서론으로서 잠언 1-9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잠언서의 해석에 관하여 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sup>5)</sup> 첫째는 지혜 문학 자체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지혜 문학에 나타난 지혜의 특성을 신 중심적(theocentric)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sup>6)</sup> 잠언서와 관련하여 볼 때, 개별 잠언들의 특성을 일반적인 인간 삶을 바탕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과 관련하여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sup>7)</sup> 둘째는

하는 여인인데,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여성 의인화 비유는 잠언 전체의 해석학적 결론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 5) 이러한 분류는 잠언 학계 전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천사무엘은 잠언의 해석학적 과제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 ① 문학적 구조의 통일성에 대한 제시의 필요, ② 지혜의 기원은 무엇인가, ③ 사회적 배경(Sitz im Leben)의 문제, ④ 신학적인 문제들. 그의 견해는 필자의 견해와 공통점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상황성(situationality)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천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14:4 (2009), 147-165.
- 6) 이 문제에 대한 요약으로는 다음 글들을 보라. Katherine J. Dell, *The Book of Proverbs in Social and Theologic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26-141; Leo G. Perdue, *Wisdom Literature: A Theological Histo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7), 1-36; Richard L. Schultz, “Unity or Diversity in Wisdom Theology? A Canonical and Covenantal Perspective,” *TynBul* 48 (1997), 271-306;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and Old Testament Theology,” *BSac* 136 (1979), 302-317.
- 7) 크렌쇼(Crenshaw)와 머피(Murphy)는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그들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였는지에 관해 큰 논쟁을 벌였다. 머피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크렌쇼는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James L. Crenshaw, “Murphy’s Axiom: Every Gnomonic Saying Needs a Balancing Corrective,” O Carm, Kenneth G. Hoglund, et al., eds., *The Listening Heart: Essays in Wisdom and the Psalms in Honor of Roland E Murphy*, JSOTSup 5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87); idem, “A Proverb in the Mouth of Fools,” Ronald L. Troxel, et al., eds., *Seeking Out the Wisdom of the Ancients: Essays Offered to Honor Michael V. Fox on the Occasion*

개별 잠언들의 역사적 삶의 정황(Sitz im Leben)에 대한 것인데, 고대 근동 지혜서들과 성경 지혜서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잠언 22:17-24:22과 이집트 지혜서인 “Instructions of Amenemope”의 상호 관련성 문제이다.<sup>8)</sup> 또한 잠언 10장 이후의 개별 잠언들의 배경이 되는 삶의 정황이 개인 가정인지 아니면 지혜 학교(wisdom school) 혹은 왕정(royal court)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잠언 학계는 이러한 삶의 정황 문제에 대한 일원화된 답은 찾기 어렵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sup>9)</sup> 셋째는 신적 보응에 대한 문제,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정론의 문제이다. 잠언에 그려지는 하나님은 과연 의인들에게는 축복으로 보상하고 죄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보상하는 공의의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로서, 특별히 가난과 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sup>10)</sup> 또한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

*of His Sixty-fif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103-116; Roland E. Murphy, “Wisdom and Yahwism,” J. W. Flanagan, ed., *No Famine in the Land: Studies in Honor of John L. Mckenzie* (Claremont: The Institute of Antiquity and Christianity, 1975), 117-126; idem, “Wisdom and Yahwism Revisited,” David Penchansky and Paul L., eds.,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What Is Right? Studies on the Nature of God in Tribute to James L. Crenshaw* (Redditt/Winona Lake: Eisenbrauns, 2000), 191-200.

- 8) A. Erman, “Eine Ägyptische Quelleder ‘Sprüche Salomos,’” *SPAW* 15 (1924), 86-93; Glendon E. Bryce, *A Legacy of Wisdom: The Egyptian Contribution to the Wisdom of Israel*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1979); John A. Emerton, “The Teaching of Amenemope and Proverbs xxii 17-xxiv 22: Further Reflection on a Long-standing Problem,” *VT* 51 (2001), 431-465.
- 9) Stuart Weeks, *Early Israelite Wisdom,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Clarendon, 1994); Riad Aziz Kassis, *The Book of Proverbs and Arabic Proverbial Works*, VTSup 74 (Leiden: Brill, 1999); Tremper Longman, *Proverb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26-28.
- 10) Timothy J. Sandoval, *The Discourse of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77 (Leiden: Brill, 2006); Raymond C. Van Leeuwen, “Wealth and Poverty: System and Contradiction in Proverbs,” *HS* 33 (1992), 25-36; Harold C. Washington, *Wealth and Poverty in the Instruction of Amenemope and the Hebrew Proverbs*, SBLDS 142 (Atlanta: Scholars Press, 1994); R. N.

비교 잠언(‘better than’ proverbs; 15:16; 20:21; 21:19 등)이 신정론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잠언에 나타난 보상 원리는 행위에 대한 기계적인 보상(행위-결과 시스템: deed-consequence nexus)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sup>11)</sup> 넷째는 상황성(situationality)에 대한 문제이다. 개별 잠언들이 과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한 특수한 정황에 걸맞는 단편적인 적실성만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개별 잠언들이 상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이해한다.<sup>12)</sup>

---

Whybray,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JSOTSup 99 (Sheffield: JSOT Press, 1990); 임태수, “잠언에 나타난 가난한 자와 부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출판위원회 편, 『지혜전승과 설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92-114; 조용식,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과 신학적 의미: עשיר וְעניר를 중심으로,” 『Canon&Culture』 3:2 (2009), 151-175.

- 11) 보스트롬(Boström)은 잠언은 기계적 보상이 아닌 성품에 대한 보상(성품-결과 시스템: character-consequence nexus)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하지만 반 르우벤(Van Leeuwen)은 ‘성품-결과 시스템’도 항상 보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현창학은 이러한 ‘행동-결과 시스템’의 보응(retribution) 원리를 잠언서의 기본적 특성으로 이해한다. 그는 이런 보응의 원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강한 복지의 원리”임을 주장한다. 다만 그는 이 보응의 원리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자율법칙은 아니며, 우주에 내재된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시는 원리라고 그 의미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가 이해하는 보응이란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운영되는 원리이고, 둘째, 미래를 지향하는 원리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과 성실을 촉구하는 원리이다. 필자는 이러한 보응 원리가 일부 잠언에서는 나타나지만 ‘비교 잠언’ 등 여러 잠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기에, 보응 원리가 잘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 자체가 10-31장에 내재된 해석적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여긴다. Lennart Boström, *The God of the Sages: The Portrayal of God in the Book of Proverbs*, ConBOT 29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90), 90-140. 특별히 138-139를 보라; R. C. Van Leeuwen, “Wealth and Poverty: System and Contradiction in Proverbs,” 29-35; 현창학, “잠언의 성격과 메시지,” 『신학정론』 26:1 (2008), 224-240.
- 12) James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rev. and enl.,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71; T. Longman, *Proverbs*, 82-86; Raymond C. Van Leeuwen, *Context and Meaning in Proverbs* 25-27, SBLDS 96 (Atlanta: Scholars Press, 1988), 87-106; Bruce K. Waltke, “Does Proverbs

이상 네 가지 잠언의 특성들은 개별 잠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본문 읽기들이 시도되었다. 먼저 잠언 10-31장의 개별 잠언의 해석학적 단서를 잠언 10-31장 자체 내에서 찾아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간략히 살펴보자.<sup>13)</sup> 대개의 경우들은 개별 잠언들의 문학적 정황(literary context)에 주목했다. 힐테브란트(Ted Hildebrandt)가 그 기초 작업들을 다졌고, 반 르우벤과 하임(Knut Heim)이 각각 잠언 25-27장과 잠언 10:1-22:16의 본문에서 개별 잠언들 간의 문학적 연결고리(literary connections)에 관심을 두고 실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sup>14)</sup> 비록 서로 다른 해석학의 이론

---

Promise Too Much?” *JCBRF* 128 (1992), 17-22. 구약신학에 있어서 지혜 문학의 소외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천사무엘, “구약성서의 지혜 문학과 창조신앙,” 『기독교문화연구』 2 (1997), 305-319.

- 13) Luis Alonso-Schökel and J. Vilchez Lindez, *Proverbios* (Madrid: Ediciones Cristiandad, 1984); Gustav Boström, *Paranomasi I Den Äldre Hebreiska Maschallitteraturen* (Lund: Gleerup, 1928); Duane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NAC 14 (Nashville: Broadman, 1993); Theodore A. Hildebrandt, “Proverbial Pairs: Compositional Units in Proverbs 10-29,” *JBL* 107 (1988), 207-224; Arndt Meinhold, *Die Sprüche, Bd 1: Kapitel 1-15*, ZBK (Zürich: Theologischer, 1991); Otto Plöger, *Sprüche Salomos (Proverbia)*, BKAT XV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1); Raymond C. Van Leeuwen, *Context and Meaning in Proverbs 25-27*; R. N. Whybray, *Proverbs*, NCB (Grand Rapids: Eerdmans, 1994). 팩스(Michael V. Fox)가 편집자로서 개별 잠언들의 해석학적 현상에 대하여 논의한 여러 글들을 묶어 출판한 *JSOT* 29/2를 참조하라. William P. Brown, “The Didactic Power of Metaphor in the Aphoristic Sayings of Proverbs,” *JSOT* 29 (2004), 133-154; Richard J. Clifford, “Your Attention Please! Heeding the Proverbs,” *JSOT* 29 (2004), 155-163; Carole R. Fontaine, “The Proof of the Pudding: Proverbs and Gender in the Performance Arena,” *JSOT* 29 (2004), 179-204; Michael V. Fox, “The Rhetoric of Disjointed Proverbs,” *JSOT* 29 (2004), 165-177; Kuntz, “Affirming Less as More: Scholarly Engagements with Aphoristic Rhetoric,” *JSOT* 29 (2004), 205-242.
- 14) Theodore A. Hildebrandt, “Proverbial Poetry: Its Settings and Syntax,” Th. D. Dissertation (Grace Theological Seminary, 1985); idem, “Proverbial Pairs: Compositional Units in Proverbs 10-29,” 207-224; idem, “Proverbs 22:6a: Train Up a Child?” *GTJ* 9 (1988), 3-19; idem, “Proverbial Strings: Cohesion in Proverbs

적 근거를 통해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 해석 근거에 있어서 이들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개별 잠언들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을 문학적 정황(Sitz im Buch)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5)</sup> 또 한편으로 잠언 1-9장에서 10-31장의 해석을 위한 틀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키친(K. A. Kitchen), 침머리(W. Zimmerli), 차일즈(B. S. Childs) 등이 처음으로 이런 견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16)</sup> 또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의 입장으로 잠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sup>17)</sup>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해석학적 관점,<sup>18)</sup> 성품 개발이라는

---

10,” *GTJ* 11 (1990), 171-185; idem, “Motivation and Antithetic Parallelism in Proverbs 10-15,” *JETS* 35 (1992), 433-444; Knut M. Heim, *Like Grapes of Gold Set in Silver: An Interpretation of Proverbial Clusters in Proverbs 10:1-22:16*, BZAW 273 (Berlin: Walter de Gruyter, 2001); Raymond C. Van Leeuwen, *Context and Meaning in Proverbs 25-27*.

- 15)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V. Fox, *review of Knut M. Heim, Like Grapes of Gold Set in Silver*, *HS* 44 (2003), 267-272; T. Longman, *Proverbs*, 38-42; Roland E. Murphy, “review of Knut M. Heim, *Like Grapes of Gold Set in Silver*,” *CBQ* 64 (2002), 351-353.
- 16) K. A. Kitchen, “Proverbs and Wisdom Books of the Ancient Near East: The Factual History of a Literary Form,” *TynBul* 28 (1977), 69-114;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552-555; W. Zimmerli, “Zur Struktur der alttestamentlichen Weisheit,” *ZAW* 51 (1933), 174-204.
- 17) Matt Wiebe, “The Wisdom in Proverbs: An Integrated Reading of the Book,”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1992); Joseph Blenkinsopp, “The Social Context of the ‘Outsider Woman’ in Proverbs 1-9,” *Bib* 72 (1991), 457-473; Burton L. Mack, *Wisdom and the Hebrew Ep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85); Christl Maier, Die “Fremde Frau,” *Proverbien 1-9: Eine Exegetische und Sozialgeschichtliche Studie*, OBO 14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Alan Moss, “Wisdom as Parental Teaching in Proverbs 1-9,” *HeyJ* 38 (1997), 426-439; Harold C. Washington, “The Strange Woman (šzrh/nkryh) of Proverbs 1-9,” T. C. Eskenazi and K. H. Richards, eds., *Second Temple Studies 2: Temple and Community in the Persian Period*, JSOTSup 175 (Sheffield: JSOT Press, 1994), 217-242.
- 18)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을 보라: Claudia V. Camp, *Wisdom and the Feminine in the Book of Proverbs* (Sheffield: Almond, 1985); Carol A. Newsom, “Women and the

관점에서 본 틀<sup>19)</sup> 등이 제기되었다. 반 르우벤은 1-9장에 나타난 임계점(liminality; 두 문화/사회적 영역의 중간에 있는 상태)이라는 주제가 10장 이후 개별 잠언들의 해석학적인 틀로 작용한다고 보았다.<sup>20)</sup> 지혜와 우매, 삶과 죽음이라는 두 구별된 영역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독자의 입장을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빌려 이해한 것이다. 필자는 잠언 1-9장 본문에 나타난 주제들의 흐름을 텍스트 링귀스틱스(text-linguistics) 방법으로 간본문성(intertextuality)에 관심을 갖고 읽어낼 때에 10-31장의 해석을 위한 잠언 1-9장의 기능을 온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장의 흐름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sup>21)</sup>

## 2. 잠언 1-3장

필자는 잠언 1-3장의 주해를 통하여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잠언 1-3장은 4-9장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의 요약이다.<sup>22)</sup> 둘째, 잠언 1-3장은

---

Discourse of Patriarchal Wisdom: A Study of Proverbs 1-9,” Peggy L. Day, ed.,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1989), 142-160.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잠언 1-9장을 연구한 자료는 상당히 많다. 자세한 자료 목록을 위해서는 필자의 박사 논문 25-27쪽을 참고하라.

19) William P. Brown, *Character in Crisis: A Fresh Approach to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22-49.

20) Raymond C. Van Leeuwen, “Liminality and Worldview in Proverbs 1-9,” *Semeia* 50 (1990), 111-144.

21) 보다 자세하고 치밀한 주해와 논증을 위해서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라.

22) 몇몇 학자들은 잠언 2장이 3-9장의 주제적 요약이라고 주장한다. Clifford, *Proverb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9), 1-2; T. Longman, *Proverbs*, 37-38; A. Meinhold, *Die Sprüche, Bd 1: Kapitel 1-15*, 43-46; R. N. Whybray,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roverbs*, JSOTSup 168 (Sheffield: JSOT Press, 1994), 12-13. 애불(Abbuhl)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하여 이 주제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Catherine S. Abbuhl, “Proverbs Chapter 2: A Canon-contextual Reading,” Ph. D. Dissertation (Emmanuel College and the

기계적인 보상론에 근거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노력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 2.1. 잠언 1:1-7(잠언서의 독서 지도)

잠언 1:1-7은 잠언서 전체를 읽는 독서 지도(reading map)의 역할을 한다.<sup>23)</sup> 1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잠언”이란 잠언 1-9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1-4절은 잠언 1-9장을 읽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지혜를 갖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 세 절들은 모두 ‘전치사 5+부정사 연계형’의 형태로 시작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잠언 1-9장의 주요 주제가 바로 지혜를 갖지 못한 자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므로, 2-4절은 잠언 1-9장에서 배워야 하는 바를 논하고 있다. 반면, 5-6절의 내용은 잠언 1-9장을 배워 지혜자가 된 사람이 10-31장에 나타나는 해석하기 어려운 개별 잠언들을 해석할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5절은 미완료형 동사(מִשְׁפָּטִים)를 사용하여 2-4절에 연속돼온 ‘전치사 5+부정사 연계형’의 구문을 깨뜨리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됨을 알린다. 5-6절이 가리키는 독자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며 지혜자/명철자이다. 독자는 이미 지혜를 얻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5절의 내용은 잠언 1-9장과는 연결되기 어렵고 따라서 10-31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독자들은 6절에서 “잠언”과 “비유”와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는 요청을 받는다. “잠언”, “비유”, “오묘한 말”은 모두 해석상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

University of Toronto, 2006). 이에 반하여 필자는 2장만이 아닌 1:8-3:35 전체가 4-9장의 주제 요약이라고 주장하며 본문을 주해하였다.

23) 필자의 입장과 유사한 견해는 샌도발(Sandoval)의 글을 보라. Timothy J. Sandoval, “Revisiting the Prologue of Proverbs,” *JBL* 126 (2007), 455-473. 필자는 5-6절이 “해석학적 요청”을 하고 있다는 그의 견해에서 한 걸음 전진하여 2-4절은 잠언 1-9장을, 5-6절은 잠언 10-31장을 간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어이기에, 5-6절은 잠언 10-31장의 해석적 임무를 내다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잠언 1:2-4은 잠언 1-9장을 읽어야 하는 목적(지혜를 얻어야 함)을 알려주며, 잠언 1:5-6은 잠언 1-9장을 통해 지혜를 얻은 후에 10-31장의 개별 잠언들을 해석하게 되며 그러한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더 얻게 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어서 잠언 1:7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러한 “여호와 경외함”은 잠언 9:10에 이르러 그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 중간의 모든 본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찾아가는 중간 과정이다.

## 2.2. 잠언 1:8-33(부정적 경고들)

잠언 1장의 나머지 부분은 두 단락으로 나뉜다(8-19절, 20-33절). 잠언 1:8-19에서는 악한 자들을 피하라는 아버지의 권고가 등장한다.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18절에 잘 드러나 있듯이, 악한 자들의 결국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라는 결과론적 관점이 뚜렷이 부각된다. 잠언 1:20-33에는 지혜 여인(Lady Wisdom)의 1인칭 화법이 등장하는데, 그 핵심은 지혜 여인을 버리게 될 때 독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데 있다. 일단 지혜 여인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혜 여인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 여인의 메시지를 듣는 독자들은 22-27절에서는 2인칭 복수로 표현되고 28-31절에서는 3인칭 복수로 호칭된다. 본문은 지혜 여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 자들은 지혜 여인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을 문학적 장치로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sup>24)</sup>

24) Cf. Phyllis Trible, “Wisdom Builds a Poem: The Architecture of Proverbs 1:20-33,”

## 2.3. 잠언 2장(지혜의 특성)

잠언 2장 전체는 22절로 이루어진 잘 짜인 하나의 시이다. 이 시를 통하여 화자(아버지)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지적 하며(6-8절), 지혜를 찾고자 하면 여호와를 찾게 될 것임을 알려준다(3-5절). 특별히 12-15절과 16-19절은 문법적으로 병행이 되는데, 12-15절은 지혜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16-19절은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16-19절에 나타나는 음녀(הַמְּנַחֵם)와 이방 계집(הַנְּכַרְתָּ)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데, 잠언 5-7장에서 이 음녀의 주제가 반복되어 발전하며 나타나기 때문이다.<sup>25)</sup> 16-19절은 음

---

*JBL* 94 (1975), 509-518.

- 25) 잠언에 나타난 음녀의 주제에 관한 요약과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 글들을 보라. 김정우, 『잠언』, 성서주석 1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86-90; Claudia V. Camp, *Wise, Strange and Holy: the Strange Woman and the Making of the Bible*, JSOTSup 37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0), 40-93; Michael V. Fox, *Proverbs 1-9*, AB 18A (New York: Doubleday, 2000), 254-262; C. Maier, *Die "Fremde Frau" in Proverbien 1-9*, 7-68; Nancy Nam Hoon Tan, *The 'Foreignness' of the Foreign Woman in Proverbs 1-9: A Study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Biblical Motif*, BZAW 381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3-11. 음녀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로는 다음 글들을 보라. J. Blenkinsopp, "The Social Context of the 'Outsider Woman' in Proverbs 1-9," 457-473; Gustav Boström, *Proverbia studien: Die Weisheit und das Fremde Weibin Sprüche 1-9* (Lund: Gleerup, 1935), 103-155; Caludia V. Camp, "Wise and Strange: An Interpretation of the Female Imagery in Proverbs in Light of Trickster Mythology," 14-36; R. J. Clifford, "Woman Wisdom in the Book of Proverbs," 61-72; M. V. Fox, *Proverbs 1-9*, 139-141; Bernhard Lang, *Die weisheitliche Lebrrede: Eine Untersuchung von Sprüche 1-7*, SBS 54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72), 91-95; C. Maier, *Die "Fremde Frau" in Proverbien 1-9*, 69-251; idem, "Conflicting Attractions: Parental Wisdom and the 'Strange Woman' in Proverbs 1-9," Athalya Brenner and Carole R. Fontaine, eds., *Wisdom and Psalms*, FCB 2/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8), 92-108; H. C. Washington, "The Strange Woman ('shzrh/nkryh) of Proverbs 1-9," 217-242; Gale A. Yee, "The Socio-Literary Production of the 'Foreign Woman' in Proverbs," Athaly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FCB 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127-130; 이희학,

녀에 대한 특징들을 소개하는데, ① 음녀의 길은 사망으로 이어지며 ② 음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녀의 특징들은 잠언 2장에서는 함축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차후 5-7장에서 자세히 밝혀지게 된다.<sup>26)</sup>

#### 2.4. 잠언 3장(지혜와 여호와의 관계, 지혜와 세상과의 관계)

잠언 3장은 세 단락으로 나뉜다(1-12절, 13-20절, 21-35절). 첫 단락(1-1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잠언 2장의 강조점이 지혜 자체에 있었다면, 3장의 강조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중심 사상이다. 두 번째 단락인 13절로부터 20절의 주제는 다시 지혜로 되돌아간다. 지혜를 얻은 자가 축복을 받은 자임을 가르친다. 13-18절은 복(בִּרְכָה)에 대한 구문으로 인클루시오(inclusio)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9-20절은 태초의 창조 장면을 묘사하는데, 여호와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그러한 창조 시에 지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19-20절의 내용은 차후 8장 22-31절에서 자세히 밝혀지게 된다. 세 번째 단락(21-35절)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뉜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הַמְּנַחֵם אִשָּׁה)’와 ‘이방 계집(הַמְּכַרְתָּא)’의 번역문제: 잠언 2장과 5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7-33.

26) 김혜운은 이사야 짜라(הַמְּכַרְתָּא)와 노키리아(הַמְּכַרְתָּא)라는 표현이 잠언 2, 5, 6, 7장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데 주목하면서, 이 표현들이 구조적인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한다고 보았다. 결국 김혜운에 따르면, 이 표현은 유대적 전통이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위협하는 “낮선 가르침을 경고하기 위해 적용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비록 필자의 분석과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지만, 이 표현들의 유기적 발전에 주목한 것은 잠언 1-9장의 통전적 읽기에 의미심장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혜운, “잠언 1-9장의 ‘הַמְּכַרְתָּא’와 ‘הַמְּנַחֵם אִשָּׁה’-구조적 일관성과 그 정체성 고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 63 (2009), 155-189.

다. 21-26절은 1:8-3:20에 나타났던 주제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27-31절은 다섯 개의 부정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를 실천해야 하는지 그 실례들을 제시한다. 32-35절은 1:8-3:35의 큰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의인/악인, 거만한 자/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미련한 자 등의 여러 가지 대조를 보여준다. 즉, 잠언 3장은 여호와와의 관계(1-12절)라는 주제를 다루고, 창조의 맥락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다루고(13-20절), 지금까지 설명된 주제를 정리하고(21-26절),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27-31절), 지혜의 실천 여부에 따라 의인/지혜자 혹은 악인/우매자가 될 것을 논증하고 있다.

## 2.5. 1:8-3:35의 결론 및 해석학적 관점

잠언 1:8-33에서는 지혜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비하여 잠언 2장은 지혜와 여호와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면서 악인과 음녀에게서 건져주는 지혜의 역할을 강조하여 지혜의 필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3장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와의 관계의 중요성, 지혜의 중요성, 이웃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4-9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주제들이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이미 언급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왜 4-9장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시 말해, 4-9장이 1-3장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측면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4-9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1:8-3:35이 제시하는 해석학적 논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1:8-3:35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곧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바른 선택(하나님 경외함)은 언제나 가능하며,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축복이 반드시 따르기에,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1:8-3:35의 본문은 기계적 보상론(행위-결과 연관 관계: deed-consequence nexus)을 기정사실로 간주한다. 비록 ‘여호와 경외함’을 말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기계적 보상 방식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는 잠언 10-31장에서 보여주는 해석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신정론의 문제나 상황성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학적 체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바로 잠언 4-9장이 이러한 해석학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1:8-3:35에 나타났던 주제들을 더 심도있게 설명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심화된 의미가 4-9장에서 드러난다.

### 3. 잠언 4-9장

잠언 4장은 지혜 여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5-7장은 ‘지혜 여인/아내’와 ‘음녀/다른 남자의 아내’를 서로 비교해 나가게 된다. 5-6장에서는 지혜 여인/아내의 매력이 우월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7장에 이르게 되면 음녀/다른 남자의 아내의 치명적인 유혹성이 드러나게 되어, 결국 음녀와 지혜 여인을 구별할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지혜 여인과 음녀의 매력의 동등성은 지혜를 찾으려는 노력에 있어서의 인식론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인식론적인 문제점은 8장에 이르러 지혜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나면서 해소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잠언 1-9장이 설명하고자 하는 해석학적인 틀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 3.1. 잠언 4장(1-3장과 5-9장의 연결고리)

잠언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1-9절에서는 지혜 여인에 대한 의인화가 뚜렷이 나타난다.<sup>27)</sup> 지혜를 3인칭 여성으로 의인화하면서 “그녀를 사랑하라(קַח אֵת הַחָכְמָה, 6절)”고 요청하고 “그녀를 품으면(תִּקַּח אֶת הַחָכְמָה, 8절)”이라고 말한다. 지혜 여인을 얻으면 그녀가 독자들을 지켜주고 영화롭게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6-8절).<sup>28)</sup> 이어서 10-19절에서는 두 길 비유를 소개한다. 지혜의 길/의인의 길과 사악한 자의 길/악인의 길의 있음을 설명하고, 독자로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권면한다. 이러한 두 길 비유는 5-7장에 나타나게 될 지혜 여인/아내와 음녀/다른 남자의 아내와의 대조를 미리 보여주는 장치이다. 20-27절에서는 바른 길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sup>29)</sup> 25절에서는 앞을 바로보고 곧게 살피야 한다고 강조하고, 27절에 이르러서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마라고 가르쳐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길로 치우칠 위험성’은 5-7장에 나타날 음녀의 유혹의 위험성을 미리 보여주는 문학적

27) 잠언 4장 1-9절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논점으로는 화자(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지혜를 받았다고 설명한다는 것이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지혜(trans-generational wisdom)를 소개하고 있다. M. V. Fox, *Proverbs 1-9*, 172-173; C. A. Newsom, “Women and the Discourse of Patriarchal Wisdom,” 151;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4), 276.

28) 필자의 논문의 주요 요지 중 하나는 화자가 자신의 아버지(즉, 독자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4b-9절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체성의 모호성(ambiguity of the speaker’s identity)이 4:10-7:27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이슈는 4:1; 5:7; 7:24; 8:32에 나타나는 “아들들아”(בָּנָי)라는 복수 호칭, 그리고 8:4, 31로 이어지는 인류 전체(בְּנֵי אָדָם)를 호칭하는 문구와 더불어 잠언 4-9장에 나타나는 독자의 민주화(democratization) 문제로 연관된다. 지면의 한계상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

29) M. V. Fox, *Proverbs 1-9*, 188; C. S. Abbuhl, “Proverbs Chapter 2: A Canon-contextual Reading,” 196; B. K. Waltke, *Proverbs 1-15*, 286.

장치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4장은 의인화된 지혜 여인에 대한 묘사, 두 길에 대한 대조,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될 위험을 경고하는 주제를 언급하여 5-7장에 나타나게 될 바른 선택(지혜 여인/아내)과 잘못된 선택(음녀/이웃의 아내)의 대조를 준비하면서 4-9장의 문맥을 시작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2. 잠언 5장(음녀의 위험과 아내의 매력)

잠언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1-14절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대한 경고가 나타난다. 3-4절에서는 음녀의 입술이 미끄럽고 꿀처럼 달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음녀의 입술의 유혹적인 모습은 7장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1-14절의 핵심 사상은 이러한 음녀의 입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죽음을 맞게 되며(5-6절) 결국 후회하게 된다고 한다(7-14절). 이에 반하여, 15-20절에서는 다른 한 여인을 선택하라고 권하는데, 처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4장의 지혜 여인의 이미지를 이어받은 이 여인의 정체성은 18절에 이르러 분명히 밝혀지는데, 바로 독자 자신의 아내이다.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15, 16, 17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물 이미지는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유비라 볼 수 있다.<sup>30)</sup> 아내의 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물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5:19b에서는 “그녀의 가슴이 너를 취하게 하도록 하고(וַיִּשְׂבֵּר לְבָבִי בְּחֶסֶד) 그녀의 사랑 안에서 비틀거리라(וַיִּשְׁתַּבְּחַן בְּאַהֲבָהּ) ”라고 말하며 성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는데, 이러한 아내의 매력은 7장에 이르러 음녀의 치명적인 유혹에 의하여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5장

30) 김정우, 『잠언』, 218-222; R. J. Clifford, *Proverbs*, 71; M. V. Fox, *Proverbs 1-9*, 199; R. E. Murphy, *Proverbs*, 32; C. A. Newsom, “Women and the Discourse of Patriarchal Wisdom,” 154-155; R. C. Van Leeuwen, *The book of Proverbs*, The New Interpreters Bible 5 (Nashville: Abingdon, 1997), 68-69; B. K. Waltke, *Proverbs 1-15*, 286.

은 첫 단락에서 음녀의 매혹성에 대하여 경고한 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내의 매력을 강조하여, 독자들이 음녀를 거절하고 아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1)</sup> 5장의 가르침을 받은 독자는 음녀의 유혹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 3.3. 잠언 6장(음녀의 위험에 대한 경고)

잠언 6장은 앞뒤 문맥과 연결하여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다. 6:1-19에 등장하는 여러 주제들이 앞뒤 본문과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후 20-35절에 이르러 음녀의 주제가 다시 등장할 때에야 비로소 그 전 맥락인 5장의 흐름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1-19절과 20-35절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고리로 인하여 6장 전체를 통전적으로 읽을 수 있다.<sup>32)</sup> 1-11절의 내용은 보증의 주제(1-5절)와 근면함의 주제(6-11절)를 소개하여 ‘앞으로 닦아 줄 경제적인 문제를 미리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형성한다. 12-19절은 12-15절과 16-19절로 나뉘는데, “(형제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14절, 19절)라는 문구로 서로 연결된다.<sup>33)</sup> 즉, 12-19절은 하나님께서 형제들

31) 이희학은 음녀(אִשָּׁה זָנָא)와 이방 계집(בְּנֵי־אֲרָם)의 번역 문제를 연구하면서, 5장 본문의 의도가 음녀와 아내의 매력을 비교하는 데 있다고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음녀의 의미가 2장, 5-7장에 걸쳐 지혜 여인/아내와 대비되며 유기적으로 발전/변화해가는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그가 2장에 나타난 음녀는 음탕한 여인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음부(淫婦)’로 번역되어야 하고 5장에 등장하는 음녀는 음탕한 모습이 없고 또한 아내와 대비되고 있으므로 ‘다른 여자’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 잘 나타난다. 필자는 2장과 5장의 음녀는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6-7장에서는 이런 음녀의 의미가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웃의 아내로 드러났다고 본다. 아래 설명을 참조하라. 이희학, “‘음녀(אִשָּׁה זָנָא)’와 ‘이방 계집(בְּנֵי־אֲרָם)’의 번역 문제,” 15-28.

32) 6장에서는 많은 단어들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1-19절과 20-35절을 거미줄과 같이 연결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결 고리에 대한 분석으로는 필자의 논문 236-237쪽에 나타난 도표를 참조하라.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1-19절의 내용은 20-35절에 나타나는 간음에 대한 경고로 직접 연결된다. 24절에서는 다시 악한 계집과 음녀의 주제를 언급하는데, 이 음녀는 바로 이웃의 아내임이 29절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26절의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팍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몸을 파는 여인(הַיָּדָוּהּ הַשֹּׁמֵרָה)에게는 한 조각 떡이 들고, 다른 사람의 아내(אִשְׁתּוֹ שֶׁתִּשְׂמָר)에게는 생명이 든다.”로 번역할 수 있다.<sup>34)</sup> 26절은 매춘과 간음을 그 지불해야 하는 비용 면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매춘이 죄이지만 간음은 더 큰 죄인데, 왜냐하면 간음을 하게 되면 생명을 대가로 내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7-29절은 간음죄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30-35절은 간음을 도적질과 비교하는데, 도적질을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간음할 경우에는 여자의 남편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6장 전체는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즉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는 죄, 경제적 희생이 뒤따르는 죄’와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죄’를 서로 비교한다. 1-19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라고 명령하며, ‘형제(אָח)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죄’(19절)라고 말한다. 반면, 20-35절은 간음죄는 즉시 해결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אִישׁ)과 그 아내

33) 16-19절은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육칠 가지”를 설명한다. 왓슨(Watson)과 페리(Perry)는 “X, X+1”이라는 히브리지 구조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제에 있다고 설명한다. Wilfred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JSOTSup 26 (Sheffield: JSOT Press, 1984), 148; T. A. Perry, *God's Twilight Zone: Wisdom in the Hebrew Bible* (Peabody: Hendrickson, 2008), 160-161.

34) 팍스는 ‘바아드’(בְּעֵד)를 “in exchange for”로, ‘아드’(עַד)를 “as much as”로 번역해야 한다고 보았다. M. V. Fox, *Proverbs 1-9*, 232.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번역은 ‘이샤 쯔나’(זֶהְיָה אִשָּׁה)를 ‘음녀’로 번역하여 5-7장의 문맥에서 계속 ‘음녀’로 번역되고 있는 ‘이샤 짜라’(זֶהְיָה אִשָּׁה)와 혼돈되도록 하였고, ‘다른 남자의 아내’로 번역해야 하는 ‘에셋 이쉬’(אִשְׁתּוֹ אִישׁ)를 ‘음란한 계집’으로 오역하여 한글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는 ‘이샤 쯔나’를 ‘창녀’로, ‘에셋 이쉬’를 ‘남의 아내’로 적절하게 번역하였다. 김정우, 『잠언』, 247.

에게 죄를 짓게 되는 악독한 죄라는 점(26, 29절)을 강조한다. 즉, 6장의 목적은 1-19절과 20-35절을 비교하여 음녀를 가까이하는 것은 보증, 게으름, 매춘, 도적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데 있다.

잠언 5장을 거쳐 6장의 가르침까지 받게 된 독자는 이제 음녀를 거절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학습하였다. 5장에서는 아내의 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배웠고, 6장에서는 음녀를 취하게 될 때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배웠다. 독자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음녀를 멀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 3.4. 잠언 7장(음녀의 유혹: 인식론적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

잠언 7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5-6장의 주제 흐름을 반전시킨다. 7장에 등장하는 음녀는 5장과 6장에서 설명되어졌던 ‘음녀를 버리고 아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들을 가져와 자신의 거짓 매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음녀의 거짓 매혹은 매우 치명적이고 그 거짓말은 매우 뛰어나, 결국 음녀와 아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sup>35)</sup>

35) 이러한 음녀의 말이 그동안 아버지가 설명해온 아내/지혜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알레티(Aletti)와 이(Yee)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잠언 4-7장의 맥락에서 7장이 음녀의 매혹을 뛰어나게 설명하여 주제적 흐름을 반전시킨다는 점을 해석학적 의도의 관점에서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필자의 논문에서 설명된 7장에서의 음녀의 말에 대한 부분은 알레티/이/클리포드의 관찰을 기초로 하여 필자 자신의 관찰과 분석을 가감하였고, 5-7장의 문맥의 흐름과 해석학적 의도에 있어서의 분석은 온전히 필자 자신의 것임을 밝힌다. J. N. Aletti, "Seduction et Parole en Proverbes I-IX," *VT* 27 (1977), 129-144; Gale A. Yee, "'I Have Perfumed My Bed with Myrrh': the Foreign Woman (iṣṣazārā) in Proverbs 1-9," *JSOT* 43 (1989), 53-68.

7장의 화자는 6-23절까지 한 스토리를 언급한다.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지혜 없는 소년은 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언행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다. 첫째, 그녀는 기생(גַּיִם)의 옷을 입었는데(10절), 사실 그녀는 이웃 남자의 아내이다(19절). 이는 6:25에서 ‘매춘녀’와 ‘이웃의 아내’를 비교한 논거를 뒤집어 놓는 언변이다.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위험이 매춘녀를 취하는 위험보다 높다는 6장의 초점을 흐려놓으며 소년의 경계심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둘째, 음녀는 또한 잠언 1:20-21에 나타나는 지혜 여인처럼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그녀는 지혜 여인이 아니다. 지혜인 척 따라하지만, 지혜는 아니다. 속임수로 소년을 유혹한다. 셋째, 그녀는 14절에서 ‘서원한 것을 갚았다(תָּמַלְשָׁה)’라고 말한다. 클리포드는 이 완료형 동사가 과거시제와 미래시제로 다 변역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음녀는 소년에게 서원한 것을 갚았다고 말하면서 제물을 먹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유혹하지만, 사실 이 제사는 아직 드러지지 않았고 제물로 바쳐질 존재는 다름 아닌 소년이라고 지적한다.<sup>36)</sup> 즉, 음녀는 화목제를 미끼로 소년을 속이고 있다. 이 역시 6장 후반부에 나타난 기생에게 드는 비용과 음녀에게 드는 비용 비교를 뒤집어놓는 반전이다. 소년은 기생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적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생명이다. 넷째, 음녀는 19-20절에서 자신의 남편은 먼 길을 떠났기에 보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말하면서 결코 간음의 행동이 남편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역시 6장 34-35절에서의 남편이 알게 될 때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논거를 뒤흔들어놓는 반전이다. 음녀는 이렇게 6장에 나타난 음녀의 위험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효화시킨다.

다섯째, 뿐만 아니라 음녀는 아버지가 5장에서 설명한 ‘아내의 매력’에 대한 가르침조차 흔들려 놓으려 한다. 18절에서 “우리가 흠족하게 사랑하자(אֲהַבְנָהּ אֲנִי וְאַתָּה)”라는 표현은 5:19의 “그녀의 가슴이 너를 취하게

36) R. J. Clifford, *Proverbs*, 88-89.

하도록 하고(וְרָיָהּ וְרָיָהּ)”라는 표현의 단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 5:19에서 설명한 아내의 매력을 무효화시킨다. 음녀의 매력은 아내 못지않다는 거짓된 설득이다. 18b절의 “사랑함으로 희락하자(וְתַעֲלֶסְהָ בְּאַהֲבָיִים)”라는 표현 역시 5:19의 그녀의 사랑 안에서 비틀거리라(בְּאַהֲבָתָהּ תִּשְׁגָּה)”라는 표현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시 말해, 7:18에서 음녀는 자신의 매력이 5:19에서 설명된 아내의 매력 못지않다고 강조한다. 음녀 유혹의 핵심 의도는 바로 5-6장에서 아내의 매력과 음녀의 위험을 설득력 있게 가르친 아버지의 교육(education)을 무효화(de-educate)하여 소년이 바른 선택(지혜/아내)과 잘못된 선택(음녀/이웃의 아내)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여 유혹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데 있다.

### 3.5. 잠언 4-7장의 해석학적 의미

이러한 음녀의 ‘미끄럽고 달콤한 입술’에 유혹된 소년은 음녀의 길을 따르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21-23절). 7장은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로 마친다(24-27절). 7장을 학습한 독자들은 음녀의 길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어떻게 해야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7장은 이 문제에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7장의 역할은 ‘음녀를 구별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있다. 5-6장을 통하여 음녀의 초대를 거절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독자들은 7장에 이르러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다. ‘나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어떻게 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적인 문제(epistemological problem)를 고민하게 된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의 ‘인식론적인 문제’가 잠언 4-7장이 던져주는 해석학적 질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 바른

선택을 위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문제는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던 잠언 10-31장의 해석학적 이슈들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본문화(textualization)된 개별 잠언들의 현재 모습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원래의 삶의 정황들, 잠언의 상황성 문제, 잠언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신적 공의의 문제와 보상 시스템의 문제 등은 잠언 해석에 있어서의 ‘인식론’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해석을 선택할 때, 적용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인 것이다. 4-7장에 나타난 음녀의 비유는 이러한 10-31장의 개별 잠언들을 해석할 때 드러나게 되는 ‘인식론적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문예적 장치가 분명하다.

### 3.6. 잠언 8장<sup>37)</sup> (지혜의 본질적 특성)

잠언 8장은 이러한 7장의 인식론적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제공한다.<sup>38)</sup> 8장의 주요한 내용은 지혜의 특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다. 7장에서 음녀는 자신이 아내, 즉 바른 선택의 대상이 되는 여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8장에 나타난 지혜 여인은 음녀가 도저히 따라하지 못할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음녀와 구별시킨다. 지혜의 특징은 22-31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22-31절에서 설명된 지혜를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의 연결자(mediator)로 해석한다.<sup>39)</sup> 그리하여 ‘지혜를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지혜

37) 잠언 8장의 해석과 관계된 이슈는 매우 많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필자의 논문에서는 “8장이 7장의 인식론적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이슈만을 다루었다.

38) 김정우는 잠언 8장의 지혜의 연설에는 7장에 나타난 음녀의 유혹을 상쇄할 수 있는 감동이 깃들여 있다고 적절히 지적하였다. 김정우, 『잠언』, 278.

39) J. N. Aletti, “Proverbs 8,22-31. Étude de Structure,” *Biblica* 57 (1976), 25-37; G. A. Yee, “An Analysis of Prov 8:22-31 according to Style and Structure,” *ZAW* 94 (1982), 58-66.

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22-31절의 본문은 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22절에서 지혜는 ‘여호와와 길의 시작’(רֵאשִׁית הַדֶּרֶךְ)으로 불린다. 시작(רֵאשִׁית)이라는 단어는 1:7에서 지식의 “근본”에 해당되는 단어이다. 8:22에서 지혜는 여호와 길의 “시작”으로 표현되는데, 그 의미는 지혜가 여호와를 찾는 시작점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지혜의 근본적인 특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에, ‘지혜를 찾기 원한다면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sup>40)</sup> 22-31절의 본문에 지혜가 강조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필자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지혜를 1인칭으로 강조한 부분은 23절, 24절, 25절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나지만, 3인칭으로 묘사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행적은 26-29절에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עָשָׂה, בְּהַכִּינוּ, בְּחָקוּ, בְּחָקוּ, בְּאֵמָנוּ, בְּעֵזוֹ, בְּשׂוֹמוֹ, בְּחָקוֹ). 즉 여호와와 지혜의 관계에 있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여호와이다.<sup>41)</sup> 다시 말해, 지혜의 본질적인 특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40) 노세영은 8:22-31을 설명하면서 지혜를 가진 지혜자는 우주적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되어 결국 사회적 질서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즉,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의 창조 세계의 원리를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혜의 구체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지혜와 여호와와의 관계성 및 지혜와 피조 세계와의 관련성 그 자체이다. 노세영, “지혜 문학에 나타난 창조신앙,” 『신학사상』 86 (1994), 117-118.

41) 김정우는 22-31절을 3연(22-26절, 27-29절, 30-31절)으로 나누고, 1연(22-26절)에는 ‘그’(여호와)와 ‘나’(지혜)의 교차대구가 나타나고, 2연(27-29절)은 ‘그’(여호와)를 강조하고, 3연(30-31절)은 ‘나’(지혜)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런 김정우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2연에서의 초점이 여호와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1연은 창조 이전의 지혜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므로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아니기에, 우리는 2연이 설명하는 창조 시점에서의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2연에서 여호와가 강조된 후, 3연에 이르러서는 지혜가 여호와와 세상 가운데 연결자로 역할하게 된다. 즉, 2연이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3연은 지혜가 여호와와 세상의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2절이 말한 “지혜가 여호와와 길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에 대한 묘사이므로, 이 표현이 무엇을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인 것이다. 또한 30-31절은 지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또한 피조세계와 인류(אֲדָמָה וְבָנָי)를 기뻐하였다고 설명한다. 지혜의 또 다른 특성은 피조 세계 전체를 알고 기뻐할 뿐더러, 인간들을 그 기쁨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지혜의 특성은 '여호와와의 관계적 특수성(particularity in terms of relationship with YHWH)'과 '피조 세계에서의 지혜의 영향력의 보편성(universality in terms of influence over cre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 3.7. 잠언 9장(요약과 결론)

잠언 9장은 4-8장에 나타난 내용의 요약이며 1-9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이다. 1-6절에서는 지혜 여인의 의인화가 등장하며, 13-18절에서는 의인화된 우매 여인이 등장한다. 4절과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명의 여인의 초대하는 말은 동일하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즉, 지혜와 우매는 그 어법에 있어서 동일하다. 어법으로는 지혜와 우매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두 여인이 준비한 음식은 전혀 다르다. 지혜 여인은 스스로 정성껏 준비한 식물과 포도주를 예비한데 반하여(1-2절), 우매 여인은 도적질한 음료와 떡을 차려놓고 그 음식이 더 맛있다고 유혹한다(17절). 지혜를 따르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6절), 우매를 따르면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될 뿐이다(18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혜와 우매를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7-12절에 주어져 있는데, 10절이 그 대답의 핵심을 구성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와 지혜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2연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2연에서 여호와의 창조행위가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은 지혜의 본질적 특성이 창조주 여호와와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김정우, “잠언 8장 22-31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8-9.

(הַחֲלֵלָה הַקָּבֵד)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찾기 위한 시작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10a절). 심지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 그 자체이다(10b절). 즉, 지혜와 우매를 구별하는 기준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1-9장의 결론으로서의 9장은 지혜/아내와 음녀/우매 여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여호와 경외함’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4장 이후의 논의들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 4. 결론(해석학적 패러다임 및 신학적 함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8-9장에 나타난 지혜의 특성이 7장에서 제기된 인식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음녀가 거짓으로 따라할 수 없는 지혜의 고유한 특징은 지혜가 가진 여호와와의 특별한 관계성, 그리고 피조물과의 보편적인 관계성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8-9장의 논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음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매력,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지혜와 음녀를 구분하려 한다면 7장이 묘사하는 음녀의 거짓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려 한다면 지혜를 구하려는 의도를 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려 해야 한다.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힘입어 피조세계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야 한다.

이렇게 지혜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여 지혜와 음녀를 구별해내는 잠언 8-9장의 가르침은 잠언 10-31장의 해석학적 난제들을 풀어내게 하는 ‘해석학적 틀’로 작용하게 된다. 10-31장의 개별 잠언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 논제는 ‘축복’, ‘적실성’, ‘아름다움’ 같은 결과론적인 요소들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유혹의 요소들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지혜와 음녀를 구별할 수 없게 되며, 우리의 해석 작업은 음녀의 유혹에 걸려들게 된다. 잠언 7장에서 보여주는 인식론적 문제를 뛰어넘는 해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의 ‘인식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감정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해석과 적용의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모든 것을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사고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삼을 때에, 그 길이 바로 ‘지혜의 길’, ‘여호와와의 길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러한 해석과 적용이야말로 ‘피조 세계에서 보편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바른 해석과 적용이 되는 것이다. 즉, 잠언 1-9장은 ‘신학적으로 형성된 인식론적 정황’을 잠언 10-31장을 위한 해석의 정황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잠언 1-9장이 가르치는 ‘여호와 경외함’이 잠언 10-31장을 위한 해석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잠시 더 숙고해 볼 때, 잠언 1-9장이 가르치는 ‘여호와 경외’는 단순한 ‘문학적 해석의 틀’만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잠언 10-31장에 수집된 잠언들은 단순한 문장들의 집합체 이상을 의미한다. 수많은 개별 잠언들이 표현하고 있는 삶의 단면들은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잠언들이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의 정황들은 더욱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더욱이 잠언 1-9장이 보여준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여호와 경외함’인데, 이 ‘여호와 경외’란 단순한 ‘문학적 요소’가 아닌 ‘삶의 태도’와 관련된 인식론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 잠언 1-9장은 독자들에게 ‘문학적 본문의 해석’(interpretation of written text)을 뛰어넘어 ‘삶의 해석’(interpretation of life)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해석학의 틀이란 사실상 ‘신앙인의 삶의 해석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호와 경외’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

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삶의 문제들을 ‘상황성’의 렌즈, ‘축복’이라는 결론론적 렌즈, ‘과거의 정황’이라는 역사적 렌즈를 통해 해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신앙적 관점’의 틀을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즉, 잠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구속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여호와 경외함’의 실제적 구현이다. 하나의 잠언의 형태로 달리 표현해 보자. ‘네 삶에서 지혜를 찾고자 뜻한다면 음녀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뜻한다면 지혜를 찾게 될 것이다.’ 잠언 1-9장은 신앙인들에게 인식론의 전격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찾게 되며 또한 지혜가 약속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주요어>

잠언, 잠언 1-9장, 지혜, 음녀, 해석학, 상황성, 삶의 정황

#### <Key Words>

Book of Proverbs, Proverbs 1-9, Wisdom, Strange Woman, Hermeneutics, Situationality, Sitz im Leben

\* 접수일 2010년 11월 4일, 수정일 2010년 11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28일

참고문헌<sup>42)</sup>

- 김정우, 『잠언』, 성서주석 1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정우, “잠언 8장 22-31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7-29.
- 김혜윤, “잠언 1-9장의 ‘זְהָרָה וְאִשָּׁה וְנִכְרִיחַ’-구조적 일관성과 그 정체성 고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 63 (2009), 155-189.
- 노세영, “지혜 문학에 나타난 창조신앙,” 『신학사상』 86 (1994), 94-118.
- 임태수, “잠언에 나타난 가난한 자와 부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출판위원회 편, 『지혜전승과 설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92-114.
- 조용식,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과 신학적 의미-עשיר וְעשיר-를 중심으로,” 『Canon&Culture』 3:2 (2009), 151-175.
- 현창학, “잠언의 성격과 메시지,” 『신학정론』 26:1 (2008), 188-240.
- 천사무엘, “구약성서의 지혜 문학과 창조신앙,” 『기독교문화연구』 2 (1997), 305-319.
- 천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14:4 (2009), 147-165.
- Abbuhl, Catherine S., “Proverbs Chapter 2: A Canon-contextual Reading,” Ph. D. Dissertation (Emmanuel College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2006).
- Aletti, J. N., “Proverbes 8,22-31. Étude de Structure,” *Biblica* 57 (1976), 25-37.
- Aletti, J. N., “Seduction et Parole en Proverbes I-IX,” *Vestus Testamentum* 27 (1977), 129-144.
- Blenkinsopp, Joseph, “The Social Context of the ‘Outsider Woman’ in Proverbs 1-9,” *Biblica* 72 (1991), 457-473.
- Boström, Gustav, *Proverbiastudien: Die Weisheit und das Fremde Weib in Spürche 1-9*, Lund: Gleerup, 1935.

---

42) 지면의 한계로 잠언 1-9장에 직접 관련된 주요 참고문헌만 수록하였다. 기타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는 각주를 참고하라.

- Brown, William P., *Character in Crisis: A Fresh Approach to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Camp, Claudia V., *Wisdom and the Feminine in the Book of Proverbs*, Sheffield: Almond, 1985.
- Clifford, Richard J., *Proverbs: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9.
- Dell, Katherine J., *The Book of Proverbs in Social and Theologic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Fox, Michael V., *Proverbs 1-9*, Anchor Bible 18A, New York: Doubleday, 2000.
- Fox, Michael V., *Proverbs 10-31*, Anchor Bible 18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Garrett, Duane A.,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New American Commentary 14, Nashville: Broadman, 1993.
- Longman, Tremper, *Proverb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 Maier, Christl, *Die "Fremde Frau" in Proverbien 1-9: Eine Exegetische und Sozialgeschichtliche Studie*, Orbis biblicus et orientalis 14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 Meinhold, Arndt, *Die Sprüche, Bd 1: Kapitel 1-15*, Zürcher Bibelkommentare, Zürich: Theologischer, 1991.
- Murphy, Roland E., *Proverbs*, Word Biblical Commentary 22,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 Newsom, Carol A., "Women and the Discourse of Patriarchal Wisdom: A Study of Proverbs 1-9," Peggy L. Day, ed.,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1989, 142-160.
- Plöger, Otto, *Sprüche Salomos (Proverbia)*,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V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1.
- Sandoval, Timothy J., "Revisiting the Prologue of Proverb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6 (2007), 455-473.
- Tan, Nancy Nam Hoon, *The 'Foreignness' of the Foreign Woman in Proverbs 1-9: A Study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Biblical Motif*, Beihefte zur

-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81,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 Van Leeuwen, Raymond C., “Liminality and Worldview in Proverbs 1-9,” *Semeia* 50 (1990), 111-144.
- Waltke, Bruce K.,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4.
- Whybray, R. N., *Proverbs*, New Century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4.
- Whybray, R. 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roverb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68, Sheffield: JSOT Press, 1994.
- Wiebe, Matt, “The Wisdom in Proverbs: An Integrated Reading of the Book,”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1992).
- Yee, Gale A., “An Analysis of Prov 8:22-31 according to Style and Structur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4 (1982), 58-66.
- Yee, Gale A., “‘I Have Perfumed My Bed with Myrrh’: the Foreign Woman (‘iššazārâ) in Proverbs 1-9,”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3 (1989), 53-68.

<초록>

##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김희석

(총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본 연구는 잠언 1-9장이 잠언 전체의 해석학적 서론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주제는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잠언 1-9장의 본문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학적 서론을 구성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본문 중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잠언 1-9장이 제시하는 해석학적 틀은 잠언 10-31장의 개별 잠언들이 드러내는 해석학적 문제점들(상황성, 고대 근동 지혜 문헌과의 관계, 신적 보응과 공의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대답을 제기하는 과정 안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이 해석학적 문제점들은 개별 잠언들이 원래의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설명 없이 텍스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잠언 1-9장이 구성하는 해석학적 틀은 4-9장의 본문 흐름을 주의 깊게 연구할 때 알 수 있다. 잠언 4-9장은 잠언 1장 8절-3장 35절에서 보여주는 ‘행위-보상 연관 관계’를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1-9장의 해석학적 틀이 구성된다. 이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잠언 4-7장에서 지혜 여인과 음녀가 서로 구별되기 어려

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4-6장은 독자로 하여금 바른 여인을 선택하고 잘못된 여인을 거절하도록 교육한다. 잠언 7장은 음녀의 거짓됨이 대단하여 음녀와 지혜를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을 제시하여 잠언 5-6장의 가르침을 반전시킨다. 즉, 잠언 4-7장은 선택과정에 있어서의 인식론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잠언 8-9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음녀가 차용할 수 없는 지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지혜는 여호와와의 관련성, 그리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성을 그 본질로 한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의 두 가지 정체성이 바른 선택을 위한 인식론적인 관점으로 제시되며, 이 인식론적 관점이 잠언 10-31장의 개별 잠언을 해석하는 틀로 작용한다. ‘신학적으로 형성된 인식론적 틀’로서의 해석학적 관점이 ‘개별 잠언들의 역사적 정황’이라는 해석학적 문제점의 근원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신학적 인식론으로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잠언 10-31장의 개별 잠언들의 해석의 열쇠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삶의 해석의 기준으로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Abstract>

## Proverbs 1-9: Hermeneutical Functions and Theological Implications

Prof. Hee Suk Kim  
(Chongshin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way Proverbs 1-9 estab-

lishes a hermeneutical framework for the book of Proverbs. Though this topic has been sporadically discussed in scholarship, how the text of Proverbs 1-9 actually establishes a hermeneutical framework still needs to be examined more thoroughly.

I argue that Proverbs 1-9 purposefully provides a specific hermeneutical lens to enable the readers to cope with interpretive issues of individual proverbs in Proverbs 10-31, such as situationality, influence of the ANE wisdom literature, and the problem of divine retributive justice. These issues mainly originate from the loss of original settings, which are crucial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ividual proverbs in Proverbs 10-31.

It is my contention that an interpretive lens arises from the textual intentions of Proverbs 4-9, which purport to revise the arguments of Prov 1:8-3:35 that strongly supports the deed-consequence nexus. This hermeneutical lens is established in two steps. First, Proverbs 4-7 postulates that Lady Wisdom and the Strange Woman are not easily distinguished. While Proverbs 4-6 strategically urges the readers to choose the right woman and reject the wrong one, Proverbs 7 reverts this textual flow to argue that the Strange Woman is too deceptively attractive to be differentiated from Lady Wisdom. In a word, Proverbs 4-7 draws attention to an epistemological difficulty in a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Proverbs 8-9 functions to enable the readers to discern Lady Wisdom by making clear her true identity that the Strange Woman cannot deceptively appropriate, which consists of religious particularity and influential universality. Wisdom is characterized by its close relationship with YHWH and its role in the world created by YHWH.

This identity of Wisdom establishes an epistemological lens for making a right decision and functions as a hermeneutical framework for the individual proverbs in Proverbs 10-31. The lost original settings of individual proverbs in Proverbs 10-31

are to be replaced by this lens, called in this study a theologically shaped epistemological framework, which accordingly copes with the aforementioned interpretive issues in Proverbs 10-31. This hermeneutical lens functions not only for the interpretation of proverbs but also for the interpretation of our contemporary life *per se*.

